

빛가람혁신도시 청년 채용 '한파'

3분기 청년 채용 629명...경력직 선호 높아지며 청년 비중 하락세 13개 기관 채용 5년간 72% 감소...취준생들, 채용 확대 목소리 높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들의 청년 채용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기준 10~20대 청년층 신규 채용 일자리가 최근 6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식된 공공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3개 공공기관의 일반 정규직 채용은 705명으로 이 중 청년 채용은 전체의 89.2%(629명)를 차지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전체 대비 청년 채용 비중은 93.54%(2020년)→91.86%(2021년)→89.60%(2022년)→2023년(86.06%) 등 지난 4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채용 규모 및 청년 채용 비중을 높인 한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청년 채용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지난해 일반정규직 총 채용 수는 266명(청년 채용 236명)으로 청년 채용 비중 88.7%였지만, 올해는 3분기 기준 총 채용 286명(청년 채용 268명) 중 청년 채용 비중은 93.7%였다.

올해 청년 채용만 실시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청년 채용 규모를 확대했던 한전 외 타 공공기관들은 청년 채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뿐 아니라 기업들의 '체형형 인턴'의 채용 비중 확대에도, 일반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과거 신입과 경력직을 따로 채용했던 채용 공고도 바뀌어 신입과 경력직을 동시에 뽑거나 아예 경

력직만 채용하는 기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일반정규직 전체 채용 수를 보면 2496명(2020년)→2078명(2021년)→1443명(2022년)→947명(2023년)→705명(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지난 5년간 71.7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취준생들이 모인 인터넷카페, 지역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안 그래도 정원 자체가 줄었는데, 경력직 채용도 늘어나다 보니 공공기관 입사가 말 그대로 '하늘에 별따기'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취준생 강시현(여·27)씨는 "내년 상반기 한전 KPS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쟁초짜' 청년 취준생보다 경력직 또는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인턴 경험자를 공공기관들도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서 불안하다"며 "전체 채용 인원이라도 확대하는 등 취업 문턱을 조금이나마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KDN,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 수상도

한전KDN이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 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이 주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 단체를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앞서 한전KDN은 지난 8월 개최된 본대회에서 'AMI장애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시간 단축, 'ICT설비 사전점검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전력운영설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절차 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 등 품질분임조 3개팀이 참가해 모두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전KDN은 해당 발표들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업무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전KDN은 또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품질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공공분야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에도 선정됐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 선정 등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과 개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개선활동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 농업기술 경쟁력 방안 모색

정책연구 협의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5일 나주시 빛가람동 KREI 본원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AgTech(농업기술)와 미래 농업'을 주제로 정책연구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양 기관은 농업의 경제·정책 분야와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정보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농업 관련 국정과제, 정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이정민 KREI 부연구위원과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신성장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 현장 적용성 확대 ▲산업경쟁력 확보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위성기반 농업관측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원격탐사 기술 활용 원리 및 벼·채소

등 주요 작물의 작황 추정 현황을 소개하고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작물 분류 및 생육 추정 기술 개선 등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성재훈 KREI 기획조정실장이 양 기관의 주요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협력 방안으로는 농업위성 자료 활용, 조사체계 개선 등 관측과 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기후위험에 대응한 농식

품 공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점 등이 논의됐다.

한두봉 KREI 원장은 "그동안 두 기관이 다양한 포럼,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aT, K-푸드 수출 시장 개척 등 논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공청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5일 대전시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공청회에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해,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와 신흥 시장 개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 aT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신제품·신기술 보급 방

안 ▲글로벌 성장 패키지와 저온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미개척 시장 진출 방안 등 3건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추진 방향 및 주제 발표 이후에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및 의견수렴 시간도 가졌다.

홍문표 aT 사장은 "K-푸드 세계화에 앞장선 수출업체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개선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국전력거래소, 정전복구 합동 훈련

한국전력거래소는 26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유관기관 합동 전계통 정전복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SK이노베이션 등 호남·영남지역의 지역별 시송전선로 조작 담당자가 직접 참여

해, 비상통신수단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실무자들은 이날 훈련에서 관제 훈련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전국의 전력계통이 정전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복구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호남·영남지역의 자체기동발전기 기동, 시송전계통 복구로 전력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두 지역의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절차도 수행했다.

이번 훈련을 총괄한 김홍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부이사장은 "훈련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전력계통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jang@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